



칭찬과 오만, 정의감과 증오심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한 해의 농사를 짓느라 고된 땀 흘리고 추수한 햇살과 햇곡식으로 조상님과 이웃, 천지신명에게 감사하는 날이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살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추석 아침에는 차례(茶禮)를 지내고, 그 동안 찾아 보지 못한 조상님들의 산소를 찾아가서 성묘(省墓)도 하고 벌초(伐草)도 한다. 초가을이라서 대개 하늘은 높고 날씨도 서늘한 좋은 계절이다.

올해는 전 지구적인 재앙인 이상(異常)기후로 폭우와 무더위가 교대로 찾아와서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 홍수로 수백명이 죽은 파키스탄 등 외국의 피해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피해이지만, 피해자와 이재민(罹災民)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모레 또 '한남노'라고 불리는 태풍이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올라오고 있다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경각심을 갖고 준비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추석하면 감사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나는 감사와 함께 칭찬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졌다. 나는 50여 년 전, 대학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선지교 같이 뭉친 핏덩어리를 입으로 수시로 토해 내는 폐결핵 3기(말기) 진단을 전남대 부속병원 흉과내과 과장 강영준 교수에게 받았다. 건강에 넘치던 나에게 청천벽력(靑天霹靂) 같은 사형선고였다. 학교를 1년 휴학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날마다 주사를 맞고 아이나, 마이암부활 등 독한 약을 다량 복용했다.

오후가 되면 얼굴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통증이 찾아왔다. 진단했던 담당 의사(교수)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아서 헛웃음이 나왔지만, 고향에 돌아와서 죽음의 문턱에 한 발을 들여 놓고 저승사자가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의사의 말이 맞고 폐결핵 중환자라는 현실이 실감이 났다.

아버지도 독자(獨子), 나도 누나 셋, 여동생 둘인 독자다. 손 마디가 굵도록 농사지어서 서울로 2대 독자를 대항 보내 놓았더니, 죽을병이 들어서 돌아와서 작은 공부방에 드러누워 있으니, 육신이 넘으신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평생을 심고 가꾸는대로 거두어들이는 정직한 농사일 밖에 모

르는 순박한 농부인 부모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대로 죽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꽃 피우지 못한 내 인생도 불쌍하지만, 나 하나 믿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이대로 죽어서는 안된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탁을 치며 반야경과 천수경, 금강경을 낭송했다. 오후에는 마을 뒤에 있는 야트막한 짓대이산에 올라가서 호흡 곤란을 이기기 위하여 호흡을 고르는 소림사(少林寺) 선법(禪法)무술 호흡법 내공(內功)도 하고 기도를 했다.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남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울면서 소리내어서 기도했다.

부처님과 천지신명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1년 만에 남에게 전염 가능성이 없는 완치(完治)가 되어서 학교에 복학했다. 물론 의사의 처방대로 주사와 복약을 충실히 했다. 지금까지 담배 연기 등 해로운 공기를 피하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나는 인간 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 모든 존재에 감사하고 칭찬해 주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보니, 나의 선의와 호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짓과 교만, 자기꾼들에게 너무 많이 당했다. 특히 칭찬해 주면 분수를 모르고 오만(傲慢)해져 버린다. 오만을 모른 척하고 웃으며 계속 받아주면, 그 오만은 끝이 없고 웃을 수 없는 코메디가 되어버린다.

거짓과 교만, 사기(詐欺)와 불의를 미워할 수 있는 용기와 정의감이 필요하다. 잘못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 주체를 지키는 정의감과 편협되고 감정적인 증오심을 구별하는 것도 상당한 지식과 경험, 경륜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산과 생명, 명예와 조직, 건강과 관습, 전통과 역사 등 성취한 가치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보수(保守)는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또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현상을 보존하고 지키는 보수의 부족과 미흡함을 개선하고 개혁하고 혁신하여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진보(進步)도 절대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보수와 진보는 상생하여 견제하고 순환하면서 상호 보완하여 역사와 인간을 가치있게 승화시키고 발전시킨다.

칼럼

전세사기 예방 위해서

기고

집주인 정보 앱(APP)으로 확인하자

이현중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최근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하고 있던 결혼식을 올리는 지인들이 많아졌다.

그로 인해 결혼을 준비하면서 당연 주택을 가장 빨리 구하려고 한다.

특히 집값이 하늘을 뚫을 정도로 많이 오른 요즘 전세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세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세사기는 중개 수수료 사기·중개업자 사기·직거래 사기·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직거래 사기는 중개 수수료 절약을 목적으로 카페, SNS 등을 통해 마치 집주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전세금을 편취 하는 수법이다.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는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싼 곳의 집을 여러 채 매입을 한 다음 보증금을 편취 하는 수법이다. 또한 중개업자 사기는 중개업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명의 임대인과 계약해 전세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내년 1월 적정 전세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앱(App)을 출시한다. 이러한 앱을 출시하는 이유는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인 임대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 때문이다. 앱을 통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전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전세 사기 가능성이 없는지 진단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확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플에 더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 전세사기 등을 막을 수 있게 하겠다 하였다. 임대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를 계약 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앱(app)만 출시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할 것이고, 상시적으로 여러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또한 강동전세를 막기 위한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그간 신축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은 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이른바 강동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계속해서 줄지 않고 올라가는 집값에 전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위와 같은 계획으로 전세사기 위험의 골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호남신문 i-honam.com</p> <p>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p> <p>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p> <p>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p> <p>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p> <p>등록번호 광구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p> <p>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p>	<p>대표전화 (062) 229-6000</p> <p>광주 서구 윤천로 213 스키야먼트 309호</p>
---	--

“추석 특별한 선물,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기고

김대현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다른 전기배선이나 시설 없이 구획된 실의 천장 등에 부착하는 설비다. 화재를 감지하면 내장된 건전지(전원)로 음향 장치가 작동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화된 법정 시설이기에 인터넷 매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부담이 적으면서 특별한 선물은 없을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제안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다. 초기 진화에 소화기만 한 게 없다는 뜻이다. 초기화재 진화가 잘되면 대형화재 재난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그럼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인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의무화된 법정 시설이다.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우리는 주변에 건물에 비치되어있는 분말소화기를 흔히 볼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ABC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A는 나무, 종이, 섬유 등 일반적으로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 화재, B는 기름, 휘발유 등으로 일어나는 유류 화재, C는 전압 기기나 기타 전기설비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 화재에 유용하다는 뜻이다. 식용유 등 주방 화재에 유효한 소화기는 K급 소화기로 ABC 소화기보다 조금은 비싼 편이다.

소화기는 각 층·세대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소방청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는 약 32%를 차지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률은 54%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치다. 이 간단한 통계만으로도 주택 소방안전 강조에 지나침이 없다.

이번 추석을 맞아 고향 집에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는 건 어떨까? 우리 가정에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실로 대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추석을 계기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보급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